

경주 남산  
가이드북 ①

# 경주남산

서남산코스(삼릉에서 용장까지)



慶州南山研究所



慶州南山研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Mt. Namsan in Gyeongju, Korea (THE RING)

####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이 경주 남산의 아름다움과 곳곳에  
깃들이 있는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고, 유적을 보전하고 연구하며, 아울러  
남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펴낸이 (사)경주남산연구소

[www.kjnamsan.org](http://www.kjnamsan.org)

E-mail: [kjnamsan@hanmail.net](mailto:kjnamsan@hanmail.net)

경북 경주시 태종로 711번길 15(노서동)

Tel. 054-777-7142

Fax. 054-776-7142

펴낸날 2022년 4월 1일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창 054. 745. 5521

\*이 안내책자는 경주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CONTENTS

삼릉에서 용장까지 쉽게 찾아가기	4
코스안내 및 해설	6
①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8
②삼릉	9
③냉곡 석조여래좌상	10
④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11
⑤삼릉계곡 선각육존불	12
⑥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13
⑦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14
⑧선각마애불	15
⑨상선암 마애선각보살상	16
⑩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16
⑪바둑바위	17
⑫상사바위와 소석불	17
⑬금오산 정상	18
⑭대연화대(삼화령)	18
⑮탑 기단석	19
⑯용장사곡 삼층석탑	19
⑰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20
⑱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21
⑲용장사지	22
⑳탑재와 석등대석	22
㉑용장계 절골 석조약사여래좌상	23
㉒약수곡 마애입불상	24
㉓약수곡 석조여래좌상	24
㉔비파바위	25
㉕비파곡 삼층석탑	25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26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27

## 삼릉에서 용장까지 쉽게 찾아가기



칠불암, 고위산  
가는 길

설장교

절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wearing a yellow hard hat and a red safety vest, standing and holding a red and white striped torch.

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



용장리

1월에 111 표를 가지 5

#### 4 경주남산가이드북 ①

도부 30분

## 삼릉에서 용장까지 코스 안내



### 코스

####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

삼릉 → 냉곡 석조여래좌상 →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 선각마애여래상 → 상선암 선각  
보살상 →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 금송정터와 바둑바위 →

#### 금오산 정상 →

대연화대(심화령) → 탑기단석 → 용장사곡 삼층석탑 →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 용장사터 → 탑재와 석등대석 → 용장계 절골 석조약사여래  
좌상

### 코스해설

배동 석조여래삼존불입상에서 시작하여 산기슭을 따라 삼릉을 답사하고, 냉골(삼릉계  
곡)을 따라 금오산 정상을 거쳐 용장계곡으로 하산하는 과정이다. 산을 오르면서 문화  
유적 답사도 겸할 수 있는 코스다. 등산복 차림에 도시락과 음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편의상 서남산주차장에 주차하고 삼릉에서부터 출발해도 좋다.

이 코스는 신라시대의 석불을 시대적으로 모두 만날 수 있는 신라 석불의 보고이다.  
먼저 삼국시대의 대표적 걸작인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통일신라의 문화적 성숙기에  
조성된 풍만하면서도 늠름한 기상이 보이는 냉곡 석조여래좌상, 하늘에서 하강하는  
모습의 마애관음보살상, 힘 있는 붓으로 한 번에 그린 듯한 선각육존불, 미완성으로 추  
정되는 신라 말의 선각여래좌상, 8세기 중엽 문화적 성숙기의 기세를 반영한 듯 흔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름다운 광배를 가졌으며, 최근에 얼굴이 복원된 석조여래좌상,  
산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살며시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한 선각마애여래상, 남산  
에서 두 번째로 크며 바위 속에서 나오는 듯한 순간을 새긴 마애석가여래좌상,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이면서도 거대한 바위산을 하층기단으로 삼고 우뚝 선 용장사곡  
삼층석탑, 남산에서 가장 씩씩하고 아름다운 청년기의 마애여래좌상, 대현스님께서  
기도하면서 돌면 불상 또한 고개를 돌렸다는 용장사지 삼륜대좌불, 김시습이 머물면서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집필한 용장사지, 9세기에 조성된 방형대좌에 앉아  
계신 악사여래좌상 등 실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의 불상을 두루 만날 수  
있다.

### 소요시간

개인 4~5시간, 해설사 동행 6.5시간

### 찾아가는 길

#### 대중교통

경주시내에서 내남행 버스(500, 502, 505, 506, 507, 508번)를 타고, 삼불사 앞(또는  
삼릉)에서 하차하면 된다. (약 15분 소요) 돌아올 때는 용장리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약 15분 소요)

#### 승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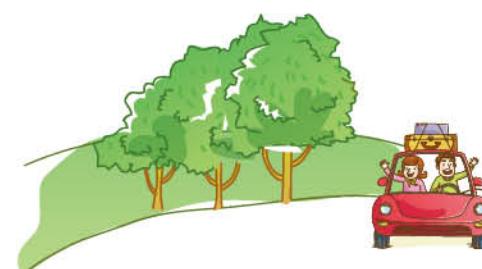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보이는 산이 남산이며, 세 번째 신호등 못 미쳐 우회전을 하면  
포석정·삼릉 방향이 된다. 우회전하여 1.3km 정도 가면 왼쪽에 포석정 주차장이 있으며,  
2.2km 지점에는 오른쪽에 서남산 주차장이 있다. 경주시내에서는 오릉을 지나 계속  
가면 포석정과 서남산 주차장이 있다. 경주시 포석로 647

차량은 서남산주차장에 주차하고(주차비 1일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

삼불사(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부터 답사하면 된다.

삼불사에도 무료주차장이 있으나 좁다.

돌아올 때는 용장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삼릉에서 내리면 된다.



## ■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63호) ①



삼불사 옆에 있는 이 석불은 주변에 흩어져 묻혀 있던 것을 1923년 지금의 자리에 모아 세운 것이다. 본존불은 높이 2.75m이며 좌우의 보살상은 높이 2.28m, 2.2m이다. 삼존이 모두 명랑하고 천진스러워 아기들처럼 보인다. 풍만한 얼굴에 크게 반원을 그린 눈썹이 깊이 패어졌고, 그 밑에 눈두덩이 부풀어 올라 가느스름한 눈자위에 그늘을 지우면서 두 눈이 천진스럽게 웃음 짓는다. 짧은 코 아래 두툼한 입술, 그 양가에 언덕을 이룬 두 뺨에 화사한 미소가 피어난다. 두 눈썹 사이에 백호가 뚜렷하고, 나발은 구슬띠처럼 표현되어 있다. 네모난 발은 평평하게 대좌를 밟아 편안하고, 두꺼운 가사에는 굵은 옷주름이 듈성듬성 U자형의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수인은 시무외인(施無畏印: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약속)과 시여원인(施與願印: 원하는 바를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삼국시대 불상은 대개 이러한 수인을 하고 있는데 통인이라 한다. 좌협시보살상은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정병을 힘껏 움켜쥐고 있다. 가느스름한 작은 눈이며 조용한 코, 상현달 모양으로 내민 입술은 모두 조그맣게 표현된 데 비해 두 뺨은 널따랗게 언덕을 이루었다. 보름달 같이 둥그런 얼굴에 부드럽고도 강한 미소가 넘친다. 두광은 장식이 없고 머리에는 관대를 두르고 삼면두식(三面頭飾)으로 장식되었다. 목에는 세 개의 영락(瓔珞)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가슴에는 승기지가 비스듬하게 가려져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이 중의 연화대 위에 서서 오른손은 영락을 잡고 왼손은 경책을 쥐고 있다. 몸은 삼굴자세를 하고 있으며, 어깨는 약간 움츠리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눈은 가느스름하여 두 눈에 웃음이 서려있고, 코는 삼각형으로 짧고 입술은 조금 큰 편인데 양쪽 가장자리가 깊게 파여져 두 뺨에 언덕을 이루면서 부드러운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둑근 두광의 테두리에는 두 줄의 선을 돌리고 5구의 화불과 두 송이의 보상화가 배치되어 있어 특이하다. 세 줄로 된 영락은 아래쪽에 큰 연꽃이 한 송이 달려 있고, 허리를 감은 군의(裙衣: 치마) 자락을 동여맨 끈이 화려하게 드리워져 있다. 본존불과 좌협시 보살은 7세기 중엽, 우협시 보살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고신라불상의 대표작이다.

경주시 포석로 692-25

## ■ 삼릉 (사적 219호) ②

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이 세 왕릉은 아래서부터 8대 아달라왕(154~184), 53대 신덕왕(912~917), 54대 경명왕(917~924)의 능으로 주변이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능의 구조는 신덕왕릉이 1936년 도굴 후 조사에 의하면, 깬 돌로 축조한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확인되어 모두 횡혈식석실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실(玄室: 주검이 안치되어 있는 방)은 정방형을 하고 있으며, 남벽 중앙에 널길을 설치하였고, 높이 35cm, 길이 2m의 자연석 시상대가 놓여 있어 합장릉으로 보인다. 무덤 내부의 북·동·서 벽면에 높이 1.4m 높이로 12폭을 상하로 나누어 24면에 일정한 순서 없이 주·황·백·군청·감청의 5색을 배색하였다. 이는 신라 고분에서 채색이 확인된 유일한 무덤이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왕릉들은 1730년경 박씨 종중에서 열조(烈祖) 현창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의 장지 기록은 없으며, 신덕왕은 죽성에 장사 지냈다 (『삼국유사』에는 화장하여 잠현 남쪽에 묻었다고 하였으며, 경명왕은 황복사 북쪽에서 장사지냈다) (『삼국유사』에는 황복사 북쪽에서 화장하여 성등잉암 서쪽에 뿐렸다)고 하였다. 계곡 너머 솔숲에는 55대 경애왕릉(924~927)이 있다.

서남산주차장(경주시 포석로 647)에서 걸어서 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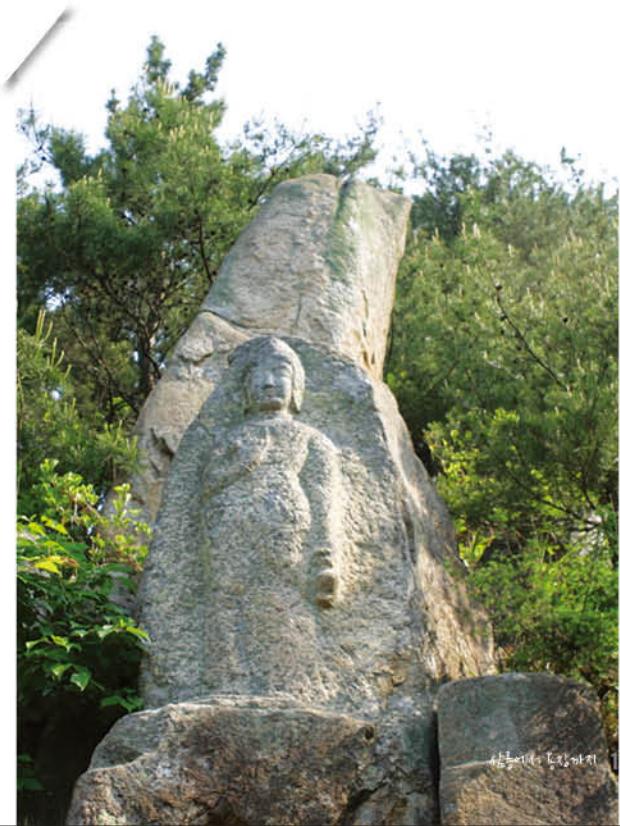
### ■ 냉곡 석조여래좌상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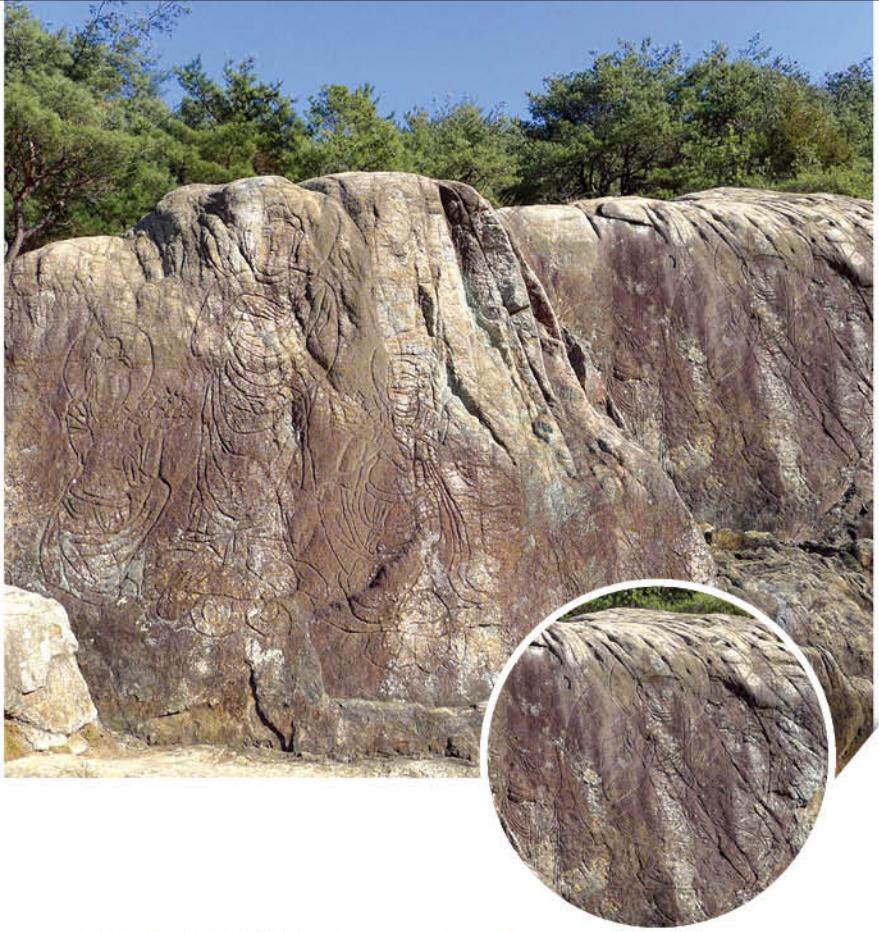
삼릉에서 개울을 따라 계곡으로 500m쯤 올라가면 길 옆 바위 위에 머리 없는 석불좌상이 앉아 계신다. 높이가 1.6m에 무릎 너비가 1.56m나 되는 큰 좌불이다. 계곡에 묻혀 있다 1964년 발굴되어 지금의 장소에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멸이 거의 없고 옷 주름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머리가 없어지고 두 무릎이 파괴되어 수인은 알 수 없다. 편안히 앉은 자세며 힘 있게 주름 잡힌 삼도, 당당한 가슴, 넓은 어깨, 탄력 있는 조각, 위풍당당한 자세로 보아 8세기 중엽 신라 전성기의 불상이다. 특히 왼쪽 어깨에서 가사끈을 매듭지어 무릎 아래로 드리워진 두 줄의 영총수실은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매듭 공예가 먼 신라 때부터 전해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부처님의 승기지(속옷) 역시 예쁜 매듭으로 묶여져 있다. 이 불상의 대좌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거칠게 치석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 불상은 본래 지금처럼 어느 곳 큰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자연과 어우러져 있던 모습이 아닐까 한다.



### ■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지방유형문화재 19호) ④

머리 없는 여래상에서 북쪽 산등성이를 쳐다보면 뾰족한 바위기둥들이 솟아 있는데 그 중 한 바위에 빙그레 미소를 머금고 하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관세음보살입상이 새겨져 있다. 살결이 풍만한 얼굴은 미소를 머금었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정병을 들고 있다.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불을 배치하여 관세음보살임을 표시하였는데 목걸이와 가사를 동여맨 끈은 나비 날개처럼 매듭을 짓고 그 자락이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 발가락 끝에까지 피가 도는 듯 섬세하게 조각된 이 불상은 따스한 촉감을 일으키는 복련(覆蓮) 위에 서 계신다. 이 관세음보살상이 서 있는 자리에는 전각을 지을 만한 곳도 없고 기와 조각도 떨어진 것이 없으니 처음부터 노천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을 비바람이 치는 노천에 세운 것은 무슨 뜻일까? 바위 벼랑에 불상을 새기고 산기슭에서 올려다보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시는 그 감격을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려 함이 아니었을까? 광배를 따로 만들지 않고 뒤쪽의 비스듬한 바위를 광배 삼아 보살상을 조각했기에 방금 하늘에서 하강한 듯한 모습이다. 이 불상이 가장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순간은 석양 해질 무렵이다. 단풍이 드는 가을철 석양 때가 더욱 좋다. 보살상의 높이는 154cm, 어깨너비는 54cm이며, 9세기에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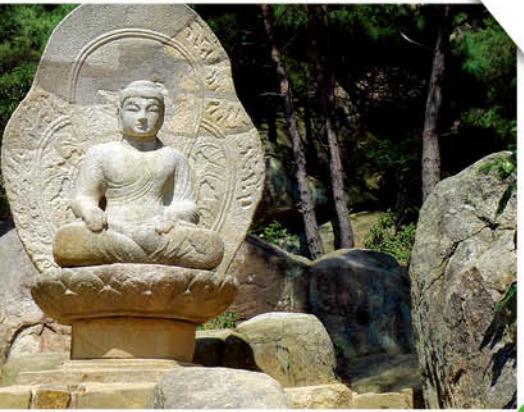
### ■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지방유형문화재 21호) ⑤

계곡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골짜기 왼쪽에 자리 잡은 넓은 바위에 선으로 새겨진 불상이 있다. 동서로 펼쳐진 넓은 바위 면에 선으로 새겨져, 마치 신라의 불교 그림을 보는 듯하다. 동쪽 바위 면에는 설법하고 있는 석가모니 삼존불을 새기고, 서쪽 바위 면에는 아미타삼존불을 새겨, 현생과 내생을 나타내었다. 아미타불의 수인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수인이며, 좌우 보살상은 한 쪽 무릎을 끊고 앉아 두 손 가득히 연꽃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우협시 보살상은 연화좌대를 생략하여 바위 속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친 바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각으로 조성하여 더욱 신비감이 느껴지는 조각이다. 바위 윗면에 목재를 결구(結構)한 흔적과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길을 파 놓았고, 바위 앞면에 많은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목조 전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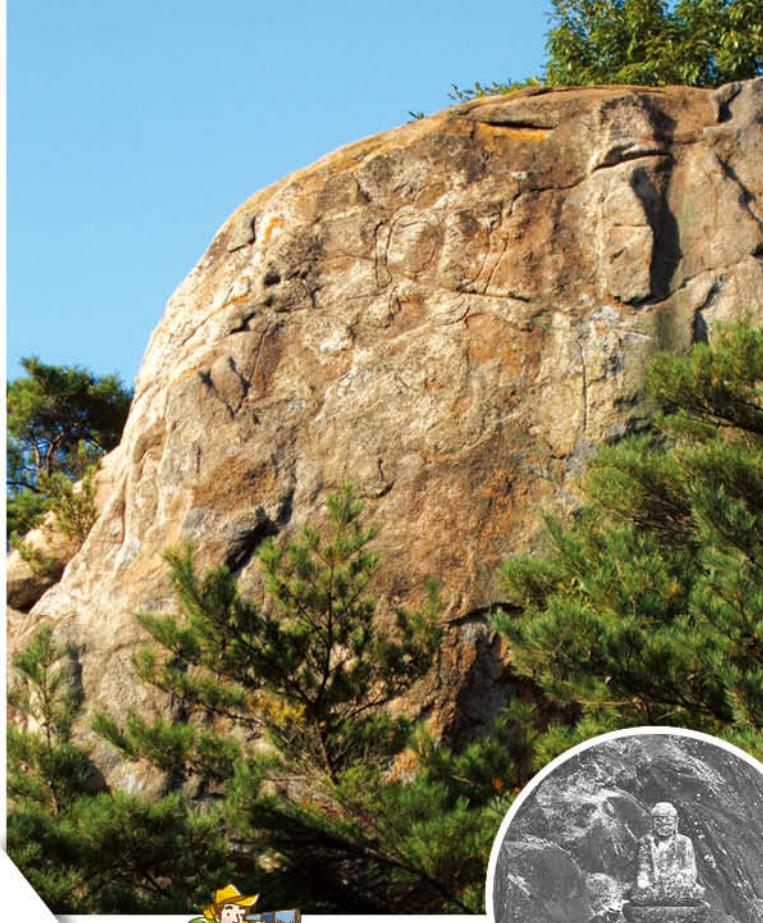
### ■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지방유형문화재 159호) ⑥

선각육존불에서 바위 위 등성이로 200m 쯤 올라가면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m 쯤 되는 넓은 절벽바위가 서쪽을 향해 솟아 있다. 그 암벽 중앙에 지름 2.5m 쯤 되는 연꽃 대좌 위에 전법륜인을 하고 앉아 계신 여래상이 있다. 몸체는 모두 선각으로 나타내고 얼굴만 깎아 내어 돋을새김으로 표현하였다. 두 눈썹과 눈은 아주 가깝고 코는 길고 입술은 두 텁고 커서 균형 잡힌 얼굴이라 할 수 없으나 소박한 위엄이 있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을 모두 표현하였다. 연화대와 광배 등은 굵은 선으로 그었고, 옷주름 같은 것은 가는 선으로 변화를 주었다. 상 전체에서 재주를 부리지 않은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데, 머리 위의 윙계, 얼굴의 투박함, 귀부분 등 세련된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 미완성으로 보인다. 남산의 마애불 중 가장 늦은 10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여래좌상 옆의 바위는 부부가 서로 안고 있는 모습 같아 부부바위라 불리고 있다.



### ■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물 666호) ⑦

선각여래좌상에서 오른쪽으로 난 능선 길을 따라 150m 정도 가면 솔숲에 많은 바위 무리가 있고, 그 가운데 순백 화강암으로 조성된 여래상이 화려한 연화대석 위에 앉아 계신다. 연화대자는 투박하게 팔각으로 깎은 하대석과 면마다 안상(眼象)을 새긴 중대석을 놓고 그 위에 화려한 보상화 연꽃을 올려 놓았다. 안상이란 귀인들이 앉는 평상을 말하는 것이니 중대석 위는 절대로 존엄한 세계라는 뜻이다. 이렇게 존귀한 평상 위에 보상화로 장식된 화려한 등근 연꽃송이를 얹어 놓았으니 이 연꽃은 수미산 위에 편 하늘의 꽃송이인 것이다.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대석이다. 보통 불상의 하대석에는 복련을 새기는데, 이 불상은 하대석을 팔각으로 거칠게 깎고 말았다. 불상이 바위 속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이 불상 주위에도 건물을 지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처음부터 노천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과 조화되지 않을 경우 불상이 눈비를 맞더라도 전각을 짓지 않았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광배의 안쪽에는 부드러운 넝쿨무늬를 새기고 바깥쪽은 힘 있게 타오르는 불꽃무늬를 새겼다. 광배는 윗부분이 조금 깨진 채로 불상 후면에 세워졌으나 1963년 겨울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려, 2008년 12월 상호와 광배를 복원하였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상이다. 불상 앞 쪽 아래 평평한 곳에 있는 작은 단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탑의 원위치이다. 바위를 탑의 기단으로 삼아 세운 삼층석탑이다.(옆 사진)



### ■ 선각마애불 ⑧

석조여래좌상의 왼쪽 개울을 건너면, 상선암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나타난다. 개울 건너 무덤 주변에서 바라보면 석조여래좌상의 뒤쪽 30여 m의 바위 절벽 면에 얼굴 부분만 선각으로 새겨진 마애불상이 있다. 부드러운 선으로 새겨져 원만한 상이다. 바위 면에 비해 불상이 너무 커서 본래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듯하다. 바위 속에 숨어 있던 부처님이 이 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 반겨주는 듯한 모습은 아닐까? 9세기에 조성된 불상이다. 이 바위의 오른쪽 바위 절벽 중턱에는 191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었다. 그 곳에는 기와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작은 건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 상선암 마애선각보살상 ⑨

상선암은 옛 절터에 90여 년 전 세워진 사찰이다. 절 뒤쪽 부서진 바위에 하반신만 선각으로 남아 있는 조각이 있는데, 화려한 옷주름과 구슬리본 등이 새겨져 있어 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완전할 경우 6m 정도 되는 큰 보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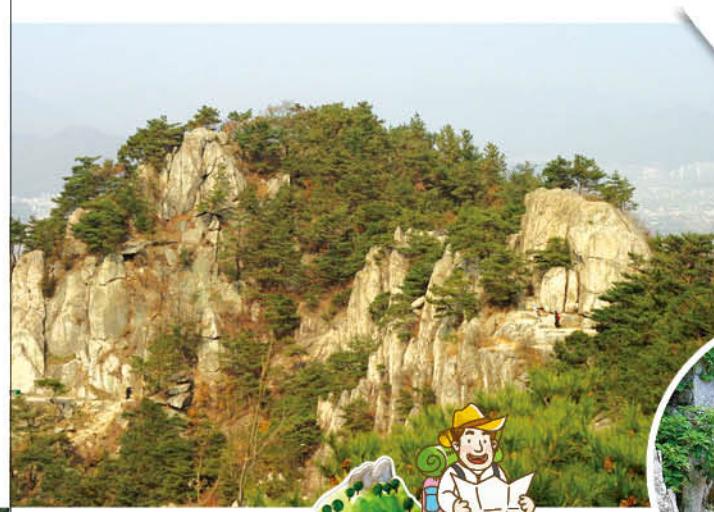


### ■ 바둑바위 ⑩

냉골 암봉 바위산 꼭대기에는 금송정터라고 전해오는 건물터가 있다. 그 옆 바위 벌판에는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며 놀았다고 하며, 『동경잡기』(1669년)에는 신라때 옥보고가 거문고를 켜던 곳이라고 한다. 전망이 좋아 서라벌 벌판과 북남산이 모두 보인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상사바위를 돌아보고 이곳에서 왔던 길을 돌아 내려가거나, 삼불사 방향으로 내려가면 된다.

### ■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지방유형문화재 158호) ⑪

상선암에서 150m쯤 올라가면 거대한 자연 암반의 벽면에 6m 높이로 양각된 불상이 있다. 이 여래좌상은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불상이다. 얼굴의 앞면과 귀 부분까지는 높은 돌을 새김으로 원만하게 새겨진 반면, 머리 뒷부분은 투박하게 바위를 쪼아 내었다. 짧은 목에 삼도는 없고, 건장한 신체는 네모난 얼굴과 잘 어울린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서 설법 인을 짓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불상의 몸부분은 거칠고 억세게 선각하였고, 좌대 부분은 부드러워지다가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 듯한 모습이다. 대좌는 중대석이 생략된 채 양려과 복련이 서로 맞붙어 있으며, 양려의 연잎 안에 다시 화문(花紋)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조각 수법은 불교가 바위신앙과 습합하여 바위 속에서 부처님이 나오시는 순간을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입체감이 없는 신체표현, 힘 이 빠진 옷주름 선 등으로 보아 9세기 불상양식을 반영하는 거대 불상이다. (지금은 낙석 위험으로 길을 돌아가도록 하여 바둑바위를 지나서 상사바위에서 내려다 보아야 한다.)



### ■ 상사바위와 소석불 ⑫

상선암 뒤로 높이 솟아있는 남산신 상심이 살고 있는 바위로서 동쪽면은 남근석과 기도처, 남쪽면은 산아당으로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기를 기도하는데 영험이 있다. 1856년에 새긴 산신당(產神堂)이라는 명문이 남아있다. 남산신 상심은 신라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기도 하였다. 상사바위의 동쪽 면은 기도용 감실이 있고 그 앞에 머리와 연화대를 잊어버린 작은 석불이 1구 있는데, 남산에서 발견된 가장 작은 석불이다. 통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고신라 불상일 가능성도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상사바위 앞 공간도 옛 절터이다. 여기서 금오산 정상까지는 20분 정도 걸린다.



### 금오산 정상 ⑯

해발 468m로서 이곳은 냉골, 포석계, 지바위  
골, 비파골, 약수골 등의 분수령이 된다. 용장  
사지 가는 길은 화장실쪽 도로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



### 대연화대 (삼화령) ⑰

용장골 정상에 있는 높은 암반 위에 거대한 연화대좌가 있다. 그 위에는 웅려무비한 솜  
씨로 큰 연꽃이 새겨져 있다. 원래는 그 위에 석불이安置되었을 것이다. 이 봉우리는  
용장사 쪽으로 뻗어내린 장엄한 산맥과 남으로 뻗어내려 고위산에 연결되는 산맥, 금  
오산정에서 굽이쳐오는 세 갈래의 큰 산맥을 모아 꽃송이처럼 솟아오른 봉우리이기  
때문에 삼화령이라고 한다.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 앞으로는 고위산이, 동쪽으로는 토  
함산 불국사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단석준령이 바라보인다. 대좌 앞으로도 한 단의  
계단이 더 마련되어 있지만 몇 걸음 아래가 낭떠러지라 겨우 참배가 허락될 정도의 여  
유만 있는 곳이다. 아마도 이곳을 천혜의 성스러운 부처님 땅으로 여겨 불상과 연화대  
를 새겨 그대로 예참 정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이『삼국유사』에 기록된, 신  
라 27대 선덕여왕 때 생의스님이 찾아내고, 35대 경덕왕 때 충담스님이 차공양을 올  
리고 안민가를 노래하던 삼화령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용장계곡으로 내려가다가 건  
너다보는 모습도 절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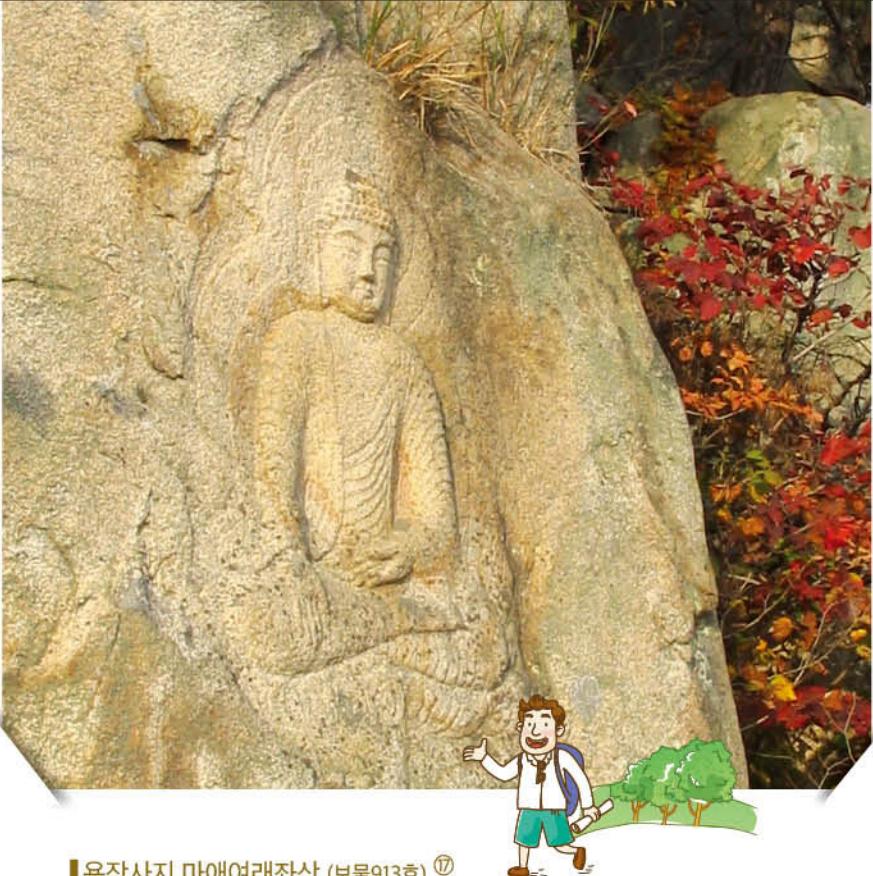
### 탑 기단석 ⑯

용장사지 최상부에 있는 석재 기단인데,  
탑의 기단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제단으  
로 추정하기도 한다.



### 용장사곡 삼층석탑 (보물 186호) ⑯

용장사지 동쪽 능선 위에 자리하여 이  
계곡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3층 옥개  
석까지 남아 있는데 높이 4.5m이다. 멀  
리서 보면 350m 높이의 바위 산 전체  
를 하층기단으로 삼은 듯하여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수미산꼭대기  
에 탑을 세운 듯하다. 바위에 홈을 파고  
6cm 정도 되는 괴임을 2단으로 마련  
하였다. 기단의 한 면은 1장의 큰 석재  
로, 나머지 3면은 2매의 석재로 결구시  
켰다. 행주는 한 개이다. 위에는 탑신괴  
임 2단이 마련되었고, 기단갑석은 2매  
의 판석으로 되어 있다. 탑신과 옥개석  
은 각각 1매의 석재로 되어있고, 2층 탑  
신은 1층에 비해 체감 효과를 크게 주  
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꾀했다. 옥개  
받침은 모두 4단으로 되어 있고 옥개석  
의 상면에는 탑신괴임이 2단씩 마련되  
어 있다.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고 삼층  
옥개석 가운데에 찰주를 세웠던 구멍이  
남아 있다. 1924년에 쓰러져 있던 탑을  
복원할 때 2층 탑신 상부에서 네모난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이 탑은 거대한  
바위산을 기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려  
가다가 꼭 올려다 보아야 한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



■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보물913호) ⑯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뒷편 동쪽으로 높이 5.5m, 폭 3.6m 가량 되는 바위면이 남향을 하고 있다. 그 바위면에 고운 연꽃 위에 결가부좌하고 항마촉지인을 한 여래상이 있다. 이 마애불은 얇은 돋을 새김으로 되어 있는데 대좌의 연꽃을 보면 가운데 꽃잎은 비교적 크게 나타내고 양 가장자리로 가면서 차츰차츰 작게 하여 끝에서는 구름처럼 사라지도록 하였다. 불상은 풍만하고 건장한 위엄을 느끼게 하고 결가부좌로 앉은 두 무릎과 넓은 두 어깨는 당당하다. 상호는 머리를 반분한 자리에 눈썹이 길게 그어졌고 양 눈썹에 이어 아래로 뻗어 내린 예리한 콧등은 얼굴 길이의  $\frac{1}{3}$ 쯤에서 고운 코를 형성하였다. 굳게 다문 입술은 양가에 힘을 주어 긴장된 표정인데 풍성한 두 뺨과 군살 어린 턱의 부드러움은 자비롭기 그지없다. 육계는 얼굴과 조화롭게 덩실 솟았고 머리카락은 나발로 표현되어 있다. 웃자락은 속이 다 비칠 것 같은 얇은 느낌으로 잘게 주름을 잡아 놓고 있다. 두광은 무늬 없이 두 겹의 원으로 표현되었고 신광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광 좌측에 명문이 2줄로 10여 자 있으나 판독이 어렵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187호) ⑰

마애여래좌상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삼륜의 대좌에 머리가 없는 좌불이 있다. 지대석은 자연석을 윗면만 고르게 가공하여 쓰고 있는데 지대석이자 곧 기단으로 보인다. 높이 1m 남짓한 기단 위에 둑글게 다듬은 북 모양의 중대석을 얹고, 그 위에 쟁반 모양의 등근 반석을 놓았다. 다시 그 위에 중대석과 반석을 놓았고, 세 번째의 중대석을 결구시키고 양려의 등근 반석대좌를 마련한 위에 화려한 연꽃방석을 얹고 결가부좌로 앉은 불상을 모셔 놓았다. 불상의 높이는 연꽃방석 밑에서 목까지가 141cm이고 대좌의 총 높이는 3m에 달한다. 불상은 결가부좌로 앉고, 오른손은 선정인, 왼손은 무릎 위에 얹은 역행마촉지 인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양어깨를 덮고 훌러내린 가사 깃 사이엔 승기지가 비스듬히 가슴을 가리고 매듭이 맵시 있게 조각되어 있다. 또 왼쪽 어깨에 드리워진 가사끈의 수실 때문에 이 불상을 승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훌러내린 가사의 자락들이 물결처럼 출렁이며 무릎을 덮고 훌러내려 상현좌를 이루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삼국유사』의 <현유기해학암(賢瑜伽海華嚴)>조에 의하면, 옛날 용장사에 유가종의 대덕이신 대현스님이 계셨는데, 그 절에는 미륵장육석상이 있어, 대현스님이 그 미륵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들면, 미륵부처님 또한 대현스님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처님이 바로 대현스님께서 기도하면서 돌던 그 미륵부처님이 아닐까 한다. 이 불상이 미륵불이라면, 자연석 하층기단은 수미산이요, 기단석 위 첫 등근 반석은 제석천왕의 도리천, 두 번째 반석은 야마천이 되며, 마지막의 연화 원반대좌는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이 아닐까.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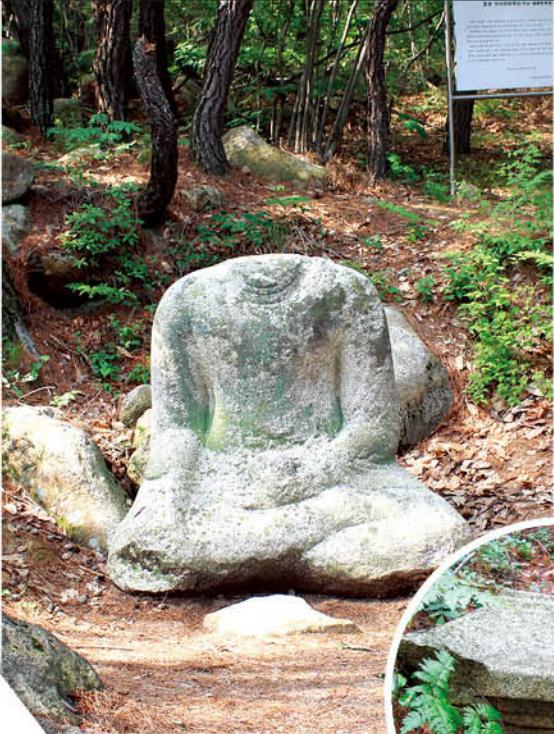


### ■ 용장사지 ⑯

용장골 어귀에 있는 마을 이름이 용장리이고 계곡 이름도 용장골이니 모두가 용장사에서 비롯한 이름들이다. 용장사는 이 계곡의 주인격일 뿐 아니라 남산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대가람이었다. 용장골의 남쪽 면은 수리산을 정상으로 하여 흘러내린 여러 갈래의 계곡들로 되었는데 열반골의 기암과 괴암들이며 은적암 부근의 삼각봉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금오산에서 뻗어 내린 여러 산맥들로 구성된 북쪽 면에는 이렇다 할 잘생긴 봉우리들이 별로 없다. 하지만 용장사가 자리 잡은 이 봉우리는 거대한 바위들로 첨첩이 솟아 있다. 용장사는 어느 때 폐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이 이곳에 머물면서 《금오신화》를 썼다고 하니 조선 중기 까지는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절터 축대들과 기와 조각들만이 폐허를 뒹굴고 있다.

### ■ 탑재와 석등대석 ⑰

현재는 기단갑석과 2층 옥개석, 자연 암반의 석등대석만 남아 있다. 이 탑재로 보아 이곳에도 석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석등대석은 밤에 이곳을 찾는 사람을 위한 등대로서의 석등이다. 이곳에서 올려다보는 삼층 석탑은 하늘의 부처님 나라를 우러러보는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절경이다.



### ■ 용장계 절골 석조약사여래좌상 ㉑

설잠교를 지나 하산하다가 절골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약 150m 정도 올라가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무너진 축대가 2곳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큰 축대가 나타난다. 법당터 한가운데 남향으로 앉으신 이 불상은 산에서 흘러온 모래와 자갈들에 묻혀 있었던 것을 1940년에 발굴 조사한 것인데, 머리와 광배는 찾지 못하고 대좌와 몸체만 발견되었다. 불상은 결가부좌로 앉아 왼손에 악 그릇을 들고 오른손은 축지인상을 나타내어 약사여래임을 나타내고 있다. 조각의 선은 부드럽고도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으며, 신체에 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9세기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삼단으로 된 이 불상의 대좌는 불상 아래에 묻혀 있으며, 남산에서 셋 밖에 없는 희귀한 네모난 대좌이다. 주변에 석탑 옥개석 1점과 하층 기단석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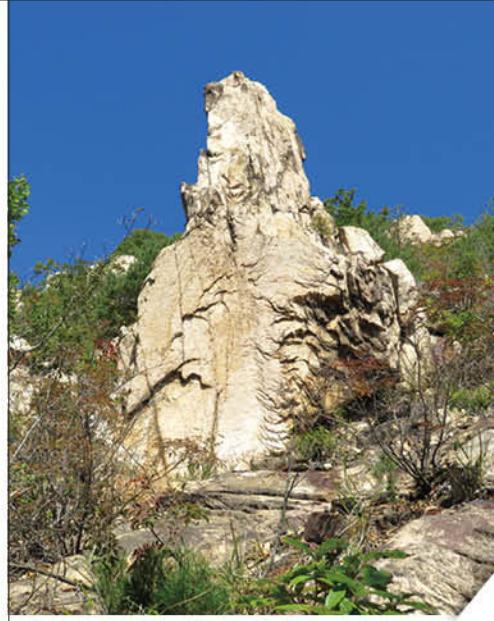
### ■ 약수곡 마애입불상 ②

산세가 가파르고 큰 바위 기둥들이 솟아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바위 남쪽 면에 여래입상이 새겨져 있다. 두 손의 엄지와 장지를 마주 대어 원손은 가슴에 올리고, 오른손은 배 앞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 어깨에서 가슴으로 비스듬히 비껴 내린 가사의 옷 주름이 점점 크고 넓게 물결치며 흘러내려와 강하게 휘어진 상현달 모양으로 끝을 맺었다. 그 아래로 가늘게 수직선을 그으며 치마[裙; 군] 자락이 흘러내려 발등을 덮었다. 양쪽 팔에 걸쳐 수직으로 드리워진 옷자락의 주름들은 어깨에서 무릎까지 힘차게 그어져서 직선과 곡선의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거대한 바위를 깎아 높이 8.6m의 불상의 몸체를 이루고, 머리와 양발은 별도의 돌을 다듬어 위에 올렸는데, 머리와 오른 발은 없어져 버렸고, 목 부분으로 추정되는 바위(삼도가 새겨져 있다)가 200여 m 아래에 풀숲 속에 뒹굴고 있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 ■ 약수곡 석조여래좌상 ②

불상의 뒷면에 남아있는 축대는 계곡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하대석이 축대 위에 남아 있어 이 불상은 그 위에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대석은 24인의 복련으로 되어 있고, 중대석은 안상을 새기고 그 속에 사천왕상을 새겼으며, 상대석은 양련을 조각하였는데, 연잎마다 두 개의 고사리 모양이 마주하여 꽃잎을 만들고, 그 안에 해무리로 장식한 화려한 양련이다. 불상은 결가부좌의 항마축지인상이며, 가사는 편단우견으로 얇은 옷주름이 풍만하면서도 탄력 있는 몸체를 감고 흐른다.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청와대로 옮겨간 이거사지 석조여래좌상과 똑같은 불상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 겨울에 머리가 발견되어 곧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9세기 초에 조성되었다. 불상의 왼쪽 능선 너머 산비탈에는 남산에서 가장 큰 축대(높이 6m, 길이 20m 정도)의 대석단 절터가 있다.



### ■ 비파바위 ④

비파골은 32대 효소왕 때 망덕사의 낙성재에 비파바위(琵琶巖)의 부처님이 누추한 옷차림으로 참석 하였는데, 왕이 그 누추함을 업신여기자, 왕을 꾸짖고는 진신석가(眞身釋迦)의 모습으로 바뀌어 훌연히 남산 바위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으로서, 비파바위와 불무사지·석가사지, 무너진 삼층석탑 2기가 남아 있다.

석가사지는 계곡 가에 축대가 남아있고, 불무사지는 능선 중턱 바위 절벽 위에 절터가 확인되었다. 삼층석탑재는 골짜기에서 가장 위쪽 능선의 무덤 주변에 텁재들이 흩어져 있다.

비파바위가 있는 주변은 하얀 화강암의 기암괴석이 누각처럼 솟아 있는 가운데 높이 6m 정도 되는 비파바위가 솟아 있다.

### ■ 비파곡 삼층석탑 ②

삼층석탑은 높이 3m 정도 되는 통일신라시대의 일반적인 석탑이나, 거칠게 치석한 바위를 기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올려 보면 거대한 바위 봉우리에 탑이 솟아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탑에서 바라보면 가암들[佳巖] 모두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바위산 봉우리에 자그마한 탑을 세우므로 해서 가암들을 수호하는 탑을 만든 것이다.

석탑 옆 바위에는 지름 21cm, 깊이 15cm 정도 되는 둥근 구멍이 패어져 있는데, 석등을 세웠던 자리로 보인다. 밤에 석등에 불을 밝히면 이 등불이 가암들을 보살피고, 가암들 어디에서라도 이 탑이 우러러 보이게 된다.

이 탑은 주변에 무너져 있던 것을 1층 탑신 괴임과 2·3층 탑신을 새로 보충하여 2002년에 복원하였는데, 1층 탑신 상부에서 너비 12cm, 깊이 6cm의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절터는 탑의 동쪽 계곡에 남아 있다.



##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안내	연중 시행	3~11월 시행							
		코스	삼릉골	남산탐방길	동남산	서남산	남남산	삼릉 가는 길	동남산산책
시간	09:30 ~13:3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3:30	09:30 ~13:30	
1 토	●						●		
일	●	●							
2 토	●							●	
일	●		●						
3 토	●								
일	●			●					
4 토	●				●				
일	●					●			
5 토	●								
일	●								
공휴	●								
출발지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 [삼릉골]은 연중 운영하며, 다른 코스는 3월~11월 운영합니다.

### 남산달빛기행(별도 안내)

- 모든 답사는 참가비 무료이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해설합니다.
- 모든 답사 프로그램은 답사 전날까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사)경주남산연구소 홈페이지([www.kjnamsan.org](http://www.kjnamsan.org))에서 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는 보다 세부적인 일정과 운영시간 등이 공지됩니다.
- 문 의 : 054-777-7142
- 제 공 : 전문해설사 동행 해설, 남산지도, 기념엽서 등
- 준비물 : 간식, 생수, 수건, 등산차림, (하루코스) 점심도시락 필수
- 참가비 : 없음

##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지 역	목 적 지	주 소	주차비(1회)	비 고
동남산	불곡 입구	경주시 인왕동 180-3		
	탑곡 입구 주차장	경주시 배반동 1132-69		버스 가능
	탑곡 옥룡암	경주시 배반동 1114		
	보리사 입구	경주시 배반동 1132-60		버스 가능
	보리사	경주시 배반동 산 66-1		
	산림환경연구원	경주시 남산동 725-2		
	화랑고육원주차장	경주시 남산동 830-5		버스 가능
	통일전주차장	경주시 칠불암길 6	무료	버스 가능
	남산리 탑(양피사지)	경주시 남산동 226-2		
	염불사지	경주시 칠불암길 125		
북남산	사마소	경주시 재매정길 47		
	월정교주차장	경주시 천원2길 11	유료(미정)	버스 가능
	상서장주차장	경주시 인왕동 276-3	무료	버스 가능
세남산	오룡주차장	경주시 탑동 231-1	대2,000, 소1,000	버스 가능
	월암고택	경주시 식혜골길 35		
	나정	경주시 탑동 700-1		주차시설 없음
	육부전주차장	경주시 남산길 37-10	무료	버스 가능
	일성왕릉	경주시 남산길 99		
	포석정주차장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지마왕릉주차장	경주시 배동 483-1		
	삼불사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92-25		
	서남산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47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악수골 입구(월성대군단소)	경주시 포석로 534-1		
	황금알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508		버스 가능
	악천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482		버스 가능
	용장리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틈수골	경주시 내남면 틈수리 734-1		주차시설 없음
	용산서원	경주시 포석로 110-34		버스 가능
남남산	열암곡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299	무료	버스 가능

# 경주남산

서남산코스(삼릉에서 용장까지)



세계유산 경주남산  
자연과 어우러진 불상과 탑들 ~